

한국어와 중국어의 주어와 화제에 대하여*

박 동 호

Abstract

Pak, Dongho. 2016. 6. 30. **In regard to the subject and topic of Korean and Chinese.** *Bilingual Research* 63, 71-10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critically problems of the definition of the subject of Korean and Chinese with respect to the topic,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 of the topic of the two languages, also to clarify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Reviewing the definition of the subject of Korean and Chinese critically, the presence of the subject form or ‘i/ga’ in Korean and the word order, in front of predicate in Chinese are very superficial phenomena. These can not only identify the subject of the two languages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it is effective in identifying the subject to consider the selectional restriction of predicate.

The characteristic of the topic of Korean and Chinese has been examined in the second place. Elements of a sentence can be analyzed in the syntactic and the discourse perspective. The subject is the concept of the syntactic perspective and the topic is the discourse perspective. The topic, depending on languages, is achieved regularly and explicitly in elements of a sentence. Such languages refer to the topic prominent language, Korean and Chinese also have this characteristic. A sentence of this language is basically constructed, based on the relation of the topic and comment. Thus, based on the concept of the topic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 of the topic of Korean and Chinese.

In conclusion, this paper examines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he two

* 이 논문은 2015년도 경희대학교 공자 아카데미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6년 4월 2일에 열린 제33차 이중언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날 토론을 해주신 토론자와 논문을 읽으면서 귀중한 의견을 주신 세 분의 심사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토론과 심사자의 내용이 이 논문을 수정, 보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languages with the topic position and maker, elements that may be the topic, and possibility of omission of the topic.

To better identify and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 and topic of Korean and Chinese, it will give a lot of help to analyze the sentence structure of both languages and it can contribute to the research of language typology with analysis of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he topic of the two languages. (Kyung Hee University)

【Key words】 한국어(Korean), 중국어(Chinese), 주어(subject), 화제(topic), 진술(comment), 선택제약(selectional restriction), 주어중심언어(subject prominent language), 화제중심언어(topic prominent language)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한국어와 중국어 주어(subject) 설정의 문제점을 화제(topic)와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며 둘째는 양 언어의 화제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어 문법에서는 서술어 앞에 오는 성분을 무조건적으로 주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 하나는 주어 설정을 위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통사 층위 개념인 주어와 담화 층위 개념인 화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주어 형식이나 ‘이/가’의 존재만으로는 주어를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 언어 주어 설정에 필요한 기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한편, 화제는 중국어 문장 구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인데 중국어 문장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는 화제가 주어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어 역시 화제중심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화제의 파악이 문장 구조 이해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양 언어의 화제를 분석하고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2장에서는 한·중 양 언어 주어 설정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양 언어의 화제를 분석한 후,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화제의 위치와 표지, 화제가 될 수 있는 요소, 화제의 생략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2. 한국어와 중국어의 주어 설정의 문제점

본 중국어 어법¹⁾에서의 주어 설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刘月华(2001)는 중국어 주어를 서술어²⁾와의 관계에 따라 시사(施事), 수사(受事), 시사도 수사도 아닌 것의 세 유형으로 나눈다. 그에 따르면 시사란 서술어로 표현되는 행위의 주체가 되는 주어를, 수사란 서술어로 표현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주어를 말한다.³⁾

- (1) 가. 我 学 习 中 文。
 wǒ xué xí zhōng wén
 (나는 중국어를 배운다.)
 나. 书 看 完 了。
 shū kàn wán le
 (책은 다 보았다)
 다. 张三 是 大 学 生。
 zhāngsān shì dàxuéshēng
 (장싼은 대학생이다.)

1) 중국어학에서는 문법(文法)보다는 어법(語法)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2) 중국어에서는 서술어를 위어(謂語)라고 하나 본 연구에서는 위어 대신에 서술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3) 刘月华(2001) 452쪽 참고.

(1가)의 ‘我’는 ‘学习’이라는 행위의 주체이므로 시사 주어이고 (1나)의 ‘书’는 ‘看’이라는 행위의 대상이므로 수사 주어이며 (1다)의 ‘张三’은 행위의 주체도 대상도 아니므로 시사도 수사도 아닌 주어라는 것이다. 그러나 (1나)에서 ‘书’를 주어로 분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주어는 원래 인도·유럽 어족 언어들을 분석, 설명하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주어는 서술어의 논항이 통사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통 문장 내에서 서술어와 긴밀한 의미 관계를 갖는데 이는 굴절어의 특성을 가진 영어와 프랑스어 등의 언어에서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른 서술어의 활용(conjugation) 형태의 변화로 표시된다. 이 긴밀한 의미 관계가 선택 제약(selectional restriction)인데 이는 서술어가 주어나 목적어 등의 위치에 분포할 수 있는 명사의 부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택 제약의 관점에서 보면 (1)의 서술어 ‘看’은 주어로는 ‘我’, 목적어로는 ‘书’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1가)의 ‘我’는 주어로 볼 수 있으나 (1나)의 ‘书’는 문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로 볼 수 없다.

굴절어에서 나타나는 주어와 서술어 간의 일치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2) 가. Je vais à l'école. (나는 학교에 간다.)

나. Il va à l'école. (그는 학교에 간다.)

(2)의 예들은 프랑스어 문장인데 서술어 ‘aller(가다)’가 주어가 ‘je(나)’ 혹은 ‘il(그)’이냐에 따라 각각 ‘vais’와 ‘va’로 다르게 활용했다. 즉, 프랑스어와 같은 굴절어에서는 서술어의 활용 형태 변화를 초래하는 문장 성분이 주어라고 명시적으로 주어를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영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가. (I + You + They) go to school.

나. He goes to school.

영어의 경우에는 프랑스 어보다는 복잡하게 활용하지 않지만 ‘he’와 같은 3인칭 단수 주어에 대해서는 서술어가 다른 형태로 활용한다. (3나)에서 ‘go’를 ‘goes’ 형태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주어 ‘he’이다. 이와 같은 동사의 활용은 영어나 프랑스 어와 같은 주어 중심 언어(subject prominent language)의 특징이다. 중국어에서 프랑스 어나 영어에서와 같이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른 서술어의 활용 형태 변화가 일어난다면 (1나)의 ‘书’가 주어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어는 고립어라서 주어를 서술어의 활용 형태 차이로 찾을 수 없다.

중국어 어법에서는 (1나)와 같은 문장을 무표지 피동문으로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르면 ‘书’가 피동문의 수사 주어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의 문제점은 (1나)의 의미가 ‘책을 다 보았다’지 ‘책이 다 읽혔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장의 의미가 피동이 아닌데 이를 피동문으로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나)를 주어가 생략된 문장으로 분석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즉, ‘我’와 같은 화자(話者)인 주어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1나)의 ‘书’를 주어로 볼 수 없는 이유와 함께 주어가 보통 문장 내에서 서술어와 긴밀한 의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즉, 중국어에서 서술어 앞에 오는 성분을 무조건적으로 주어로 간주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으며 중국어의 주어를 설정할 때에도 서술어의 선택제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국어 문법에서의 주어 설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남기심·고영근(2003)은 한국어의 주어를 일반적으로 한 문장은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중의 한 가지 형식을 취하는데 이때의 ‘무엇이’(또는 ‘누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의 주체를 표현하는 말로 정의하였다.⁴⁾ 그러나 이 정의 역시

4) 남기심·고영근(2003) 237-238쪽 참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4) 가. 철수가 학교에 간다.
- 나. 대구가 사과야.

(4가)와 (4나)는 각각 ‘누가 어찌한다’, ‘무엇이 무엇이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4가)의 ‘철수’는 주어로 분석할 수 있는 반면, (4나)의 ‘대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4가)의 서술어 ‘가다’는 주어 논항으로 ‘철수’를 취할 수 있다. 즉, 이들 사이에는 긴밀한 의미 관계가 성립한다. 더욱이 고립어인 중국어와는 달리 교착어인 한국어에는 명사 뒤에 붙어 그 명사가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 ‘이/가’가 존재하는데 ‘철수’ 뒤에 놓인 이 주격조사가 ‘철수’가 주어임을 확인시켜준다. 이는 마치 굴절어의 특징을 갖는 독일어에서 명사가 격에 따라 변화하여 주격에 대해서 특별한 형태가 존재하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중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4나)에서는 ‘대구’를 주어로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서술어 ‘사과야’가 ‘대구’를 주어 논항 자리에 위치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구’가 서술어의 선택 제약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구’ 뒤에도 ‘이/가’가 존재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4가)의 ‘철수가’의 경우와는 다르게 ‘대구’를 주어로도 분석할 수 없으며 이 ‘이/가’를 주격조사로도 분석하기 어렵다.

전술한 ‘이/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다음 예들을 살펴 보도록 하자.

- (5) 가. 철수가 돈이 있다.
- 나. 서울이 사람이 많다.

(5)가 ‘무엇이(누가) 어떠하다’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철수’와 ‘서울’ 뒤에 ‘이/가’가 존재하므로 한국어 학교 문법에서는 이들을 보통 주어로 분석한다. 이 경우 서술어가 내포절이 되는데 이를 서술절이라 한다. (5)의 문장들을 이중주어문⁵⁾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철수’와 ‘서울’은 전체 문장의 주어이며 ‘돈’과 ‘사람’은 서술절의 주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석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자.

(5)의 문장들과 관련하여 다음 (6)의 문장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6) 가. 철수에게 돈이 있다.

나. 서울에 사람이 많다.

(5가)와 (6가), (5나)와 (6나)는 각각 의미가 거의 동일하며 규칙적 대응관계를 갖는다. (6가)는 ‘있다’의, (6나)는 ‘많다’의 2개의 필수적 성분이 각각 실현된 문장이다. 즉, ‘돈’과 ‘사람’은 각각의 서술어의 주어이며 ‘철수에게’와 ‘서울에’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한편, 여기서 중요한 것은 (5가)의 ‘철수가’와 (5나)의 ‘서울이’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5가)의 ‘철수가’나 (5나)의 ‘서울이’를 주어가 아닌 필수적 부사어로 분석한다. 즉, (6)을 (5)의 기저문으로 분석하며 (6)과 (5) 사이에는 다음 (7)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⁶⁾

5) 이에 대해서는 목정수(2005), 조경순(2014), 한정한(2013) 참고.

6) 임동훈(1997: 39-42)에서는 소위 심리형용사 구문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분석하고 있다.

(i) 가.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나. 나에게는 호랑이가 무섭다.

분석의 골자는 한국어에서 ‘에게’의 탈락이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i가)의 기저를 (i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5), (6), (7)은 심리형용사 구문이 아니며 따라서 이들의 분석에 있어 임동훈(1997)과 견해를 달리한다.

- (7) 가. 철수에게가 돈이 있다.
- 나. 서울에가 사람이 많다.

(7가)의 ‘철수에게가’와 (7나)의 ‘서울에가’는 (6가)의 ‘철수에게’와 (6나)의 ‘서울에’의 뒤에 각각 ‘이/가’가 붙은 연쇄인데 이들에서 부사격 조사 ‘에게’와 ‘에’가 생략되면서 생성된 문장이 바로 (5)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따르면 (5가)의 ‘철수가’와 (5나)의 ‘서울이’는 주어라 아닌 필수적 부사어이며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이/가’는 주격조사가 아닌 특수조사이다. 즉, 본 연구의 입장은 ‘이/가’의 두 가지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입장과는 다른 분석이 있을 수 있다.⁷⁾ 이 분석의 골자는 (5가)와 (6가), (5나)와 (6나)는 서술어 ‘있다’와 ‘많다’의 각기 다른 논항구조의 실현이라는 것이다.⁸⁾ 그렇다 하더라도 (5가)와 (5나)의 ‘철수가’와 ‘서울이’를 주어로 분석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있다’나 ‘많다’가 선택 제약에 의해 ‘철수’나 ‘서울’을 주어 자리에 위치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와 (6)을 다른 논항 구조를 갖는 문장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즉, (5)의 ‘철수가’와 ‘서울이’를 주어로 분석하지 않는다.

다른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7) 본 연구는 2016년 4월 2일에 열린 제33차 이중언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는데 발표에 대한 토론 내용 중에 이와 같은 분석이 제기되었다.

8) 이와 같은 주장과 함께 토론 중에 ‘철수가’가 ‘많다’의 주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많다’의 주어는 ‘돈이’임) ‘돈이 많다’의 주어라고는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서울이’가 ‘많다’의 주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많다’의 주어는 ‘사람이’임) ‘인구가 많다’의 주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돈이 많다’나 ‘인구가 많다’를 서술어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어에서 동사, 형용사, ‘X-이다’ 외에 서술절, 즉 ‘주어-서술어’의 연쇄를 서술어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자립성을 갖는 두 낱말의 연쇄 전체를 서술어로 간주하는 것으로 특히 예외적이다. 또한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시다’의 예를 들면서 ‘-시-’의 일치 현상이 ‘할아버지가’가 주어임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본 연구의 입장은 항상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뿐만 아니라 화제에 대해서도 ‘-시-’의 일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 (8) 가. 영희가 눈이 예쁘다.
나. 철수가 키가 크다.

(8)은 ‘누가 어떠하다’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영희’와 ‘철수’ 뒤에 ‘이/가’가 존재하므로 학교 문법에서는 ‘영희’와 ‘철수’를 전체 문장의 주어로, ‘눈이 예쁘다’와 ‘키가 크다’를 (5)에서와 같이 서술절로 분석한다. 한편, (8) 역시 다음 (9)와 일정한 대응 관계를 이룬다.

- (9) 가. 영희의 눈이 예쁘다.
나. 철수의 키가 크다.

(9)에서 ‘영희의’와 ‘철수의’는 각각 ‘눈’과 ‘키’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8)과 (9) 사이에 일정한 의미적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8)의 ‘영희가’와 ‘철수가’가 어떤 문장 성분인가는 확실하지 않다. 어쨌든 이들이 주어는 아니라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예쁘다’나 ‘크다’는 주어 자리에 ‘영희’나 ‘철수’를 위치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4나), (5), (8)의 예들을 통해 특별한 기능을 하는 ‘이/가’의 존재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 ‘이/가’에 대해 더 논의해보도록 하자. 다음 예들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 (10) 가. 이 차는 기름이 많이 먹는다.
나. 물이 마시고 싶어요.

(10)의 ‘기름’과 ‘물’은 ‘이/가’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로 분석하기 어렵다. ‘먹다’나 ‘마시다’는 타동사로 ‘기름이’와 ‘물이’가 목적어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⁹⁾ 그렇다면 이 ‘이/가’

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 ‘이/가’를 특수조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잠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한국어에서의 주어 형식이나 ‘이/가’의 존재, 중국어에서의 서술어 앞이라는 위치(어순)는 매우 표면적인 현상으로 이들만으로는 양 언어의 주어를 식별할 수 없으며 서술어의 선택 제약을 고려하는 것이 주어를 식별하는데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3. 한국어와 중국어의 화제의 대조

3.1. 한국어와 중국어의 화제의 분석

(1나) 예문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1나) 书 看 完 了。
 shū kàn wán le
 (책은 다 보았다)

9) (10나)의 ‘물이’ ‘마시다’의 목적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마시고 싶다’의 주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마시고 싶다’는 선택 제약에 따라 주어 자리에 ‘물이’를 위치시킬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즉, (10나)의 원래 문장은 ‘저는 물이 마시고 싶어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의 주어는 ‘저는’이다. 한편, (10나)의 ‘싶다’ 구문을 소위 ‘tough’ 구문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다. 즉, ‘tough’ 구문에서 다루는 문장들인 ‘이 책을 읽기 쉽다’와 ‘이 책이 읽기 쉽다’의 관계가 ‘물을 마시고 싶어요’와 ‘물이 마시고 싶어요’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입장은 이 두 구문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책을 읽기 쉽다’가 ‘이 책을 읽기가 쉽다’에 나온 것으로 분석한다. 즉, ‘이 책을 읽기’는 전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내포절이며 주격조사 ‘이/가’가 생략된 것이다. 이 경우, ‘책’은 ‘읽다’의 목적어이다. ‘이 책이 읽기 쉽다’는 ‘이 책이 읽기에 쉽다’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한다. 이 경우, ‘이 책이’는 전체 문장의 주어이다.

(1나)에 대해서 다음의 (1나')가 가능하다

(1나') 看 完 书 了。
 kàn wán shū le
 (책을 다 보았다.)

중국어의 일반적 어순인 SVO¹⁰⁾에 따라 ‘书’가 ‘看完’ 뒤에 사용된 (1나')가 보통 어순의 문장이다. 한편, (1나)는 ‘书’가 서술어 앞으로 이동한 문장인데 목적어인 ‘书’가 문두로 이동하여 화제(topic)가 되었다.¹¹⁾ 전술한 바와 같이 刘月华(2001)가 (1나)의 ‘书’를 주어라고 한 까닭은 통사적 층위의 개념인 주어와 담화적 층위의 개념인 화제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¹²⁾

다른 중국어 어법서에 나타난 주어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자. 北京语言大学(2008)은 중국어의 보통 문장은 항상 두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술을 하는 부분과 서술을 받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서술을 받는 부분이 주어 부분이며 이는 진술, 설명, 묘사의 대상이 된다. 서술을 하는 부분이 서술 부분이며 이는 주어 부분에 대하여 진술, 설명, 묘사를 한다. 그리고 주어 부분과 서술 부분의 핵심이 각각 주어와 위어라는 것이다.¹³⁾ 이 기술 역시 주어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화제에 대한 정의인데 화제를 주어로 잘못 생각한 것이다.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는 통사적 관점과 담화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주어는 통사적 관점의 개념이며 화제는 담화적 관점의 개념이다.

10) S는 주어(subject), V는 동사(verb), O는 목적어(object)를 의미한다. 중국어에 서는 ‘주어-위어-빈어’ 어순을 말한다.

11) 따라서 (1나)의 한국어 번역을 ‘책’을 주제화하여 ‘책은 다 보았다’로 하는 것이 좋다.

12) 2.1. 참고.

13) 北京语言大学(2008) 229쪽 참고.

담화적 관점에서는 문장을 서술을 받는 부분과 서술을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화제, 후자를 진술(comment)이라고 한다. 언어에 따라서는 화제와 진술이 문장 내의 성분과 규칙적 명시적으로 대응되어 실현된다. 이와 같은 언어를 화제 중심 언어(topic prominent language)라고 하는데 이러한 언어의 문장은 기본적으로 화제와 진술의 관계에 기초하여 구성되며 화제가 항상 문장 구성의 중심 역할을 한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화제 중심 언어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¹⁴⁾

(1)의 예문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1) 가. 我 学 习 中 文。

wǒ xué xí zhōng wén

(나는 중국어를 배운다.)

나. 书 看 完 了。

shū kàn wán le

(책은 다 보았다.)

다. 张三 是 大学生。

zhāngsān shì dàxuéshēng

(장싼은 대학생이다.)

(1가)의 ‘我’는 주어인 동시에 화제이다. ‘我’가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서술어 ‘学习’이 선택 제약에 의거하여 ‘我’를 주어 논항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我’가 ‘学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므로 ‘我’를 주어로 판단할 수 있다. 영어나 프랑스 어에서와 같이 서술어 ‘学习’이 ‘我’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 특별한 활용 형태를 갖는다면 보다 명시적으로 ‘我’가 주어임을 확인할 수 있겠으나 중국어가 고립어임으로 이

14)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서술어의 활용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도 한국어와 중국어의 화제 중심 언어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는 불가능하다. 한편, ‘我’는 담화적 관점에서는 화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담화적 관점에서는 문장을 서술을 받는 부분과 서술을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가)의 문장에서 누가 서술을 받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바로 ‘我’라고 답할 수 있다. 즉, ‘我’가 화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我’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서술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것이 진술이다. (1가)에서는 ‘学习中文’ 전체가 진술이다. (1가)에서는 주어와 화제가 일치했다.

(1나)의 ‘书’는 주어가 아닌 목적어가 화제가 된 것이다. 서술어 ‘看’은 선택 제약을 여기게 되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书’라는 사물 명사를 위치시킬 수 없다. 한편, ‘书’는 다음과 같은 유표지 피동문에서는 주어가 될 수 있다.

(1나“) 书 被 看 完 了。
shū bèi kàn wán le
(책이 다 읽혔다)

(1나)의 ‘书’는 통사적 관점에서는 목적어이지만 담화적 관점에서는 화제이다. (1나)에서는 ‘书’에 대해 ‘看完了’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书’가 화제가 되고 ‘看完了’가 진술이 되는 것이다.

(1다)에서는 ‘张三’이 주어인 동시에 화제이다.

화제는 중국어 문장 구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다. 문장의 화제는 진술하는 대상이다. 하나의 문장 내에 화제와 주제가 모두 존재하는 예를 살펴보자.

(11) 가. 张三 我 昨天 见 了。
zhāngsān wǒ zuótiān jiàn le
(장싼은 내가 어제 만났다.)

나. 这 个 家 客 厅 很 大。
 zhè gè jiā kètīng hěn dà
 (이 집은 거실이 크다.)

(11)에서 진술의 대상이 되는 것은 ‘张三’과 ‘这个’이다. 따라서 이들은 화제이다. (11가)에서 주어는 만나는 행동을 하는 ‘我’이고 (11나)에서 주어는 큰 상태에 있는 ‘客厅’이다. 이렇게 주어는 서술어와 직접적인 의미 관계를 맺지만 화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어의 화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예문 (4)를 다시 보도록 하자.

(4) 가. 철수가 학교에 간다.
 나. 대구가 사과야.

(4가)의 ‘철수’는 주어로, (4나)의 ‘대구’는 주어가 아닌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렇다면 ‘대구’는 무엇일까? ‘대구’는 화제이다. 한국어의 화제는 특별한 표지를 갖는데 이것이 바로 ‘은/는’이다. 따라서 (4나)를 ‘대구는 사과야.’로 하면 보다 자연스러우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가’도 특수조사로 사용되어 화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대구가 사과가 유명해.’라는 의미를 (4나)의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통사적으로 ‘대구’가 주어가 아니라면 어떤 성분인가 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제시할 수 없다.

(4나)와는 다르게 보통 어떤 성분이 화제가 되었는지는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 (5)¹⁵⁾와 (6)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5) 가. (철수가 + 철수는) 돈이 있다.
 나. (서울이 + 서울은) 사람이 많다.

15) 예문 (5)를 약간 수정하여 ‘철수는’과 ‘서울은’을 추가하였다.

(6) 가. 철수에게 돈이 있다.

나. 서울에 사람이 많다.

(5)와 (6)이 각각 의미가 거의 동일하며 규칙적 대응관계를 맺음을 언급한 바 있다. (5)의 ‘철수’와 ‘서울’은 화제인데 어떤 통사적 성분이 화제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7)¹⁶⁾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의 필수적 부사어 ‘철수에게’와 ‘서울에’에 특수조사가 붙어 화제가 된 것이다.

(7) 가. (철수에게가 + 철수에게는) 돈이 있다.

나. (서울에가 + 서울에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 경우, 원래의 부사격조사가 생략되어 사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5)의 문장이 도출된다.

(8)과 (9)의 예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8) 가. 영희가 눈이 예쁘다.

나. 철수가 키가 크다.

(9) 가. 영희의 눈이 예쁘다.

나. 철수의 키가 크다.

전술한 바와 같이 (8)과 (9) 사이에 일정한 의미적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장 성분이 화제가 되어 (8)에서 ‘영희가’와 ‘철수가’로 실현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6) 예문 (7)을 약간 수정하여 ‘철수에게는’과 ‘서울에는’을 추가하였다.

3.2. 한국어와 중국어의 화제의 차이점과 공통점

화제는 중국어 문장 구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중국어에서 문장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 주어보다는 화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어 역시 화제중심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화제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국어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화제를 위치와 표지, 화제가 될 수 있는 요소, 화제의 생략 가능성을 중심으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2.1. 화제의 위치와 표지

중국어의 화제는 위치상 항상 문두에 위치한다.

(12) 昨天 我 见 了 张三。
zuótiān wǒ jiàn le zhāngsān

(어제는 내가 장싼을 만났다.)

(13) 那 只 狗 我 见 过。
nà zhī gǒu wǒ jiàn guò

(저 개는 내가 본 적이 있다.)

(12)의 ‘昨天’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가어(附加語, adjunct)¹⁷⁾인데 화제로 실현되기 위해 문두에 놓였다. (13)의 ‘那只狗’는 필수적 성분, 즉 보충어(補充語, complement)¹⁸⁾인데 문두에 실현되어 화제가 되었다.

17) ‘昨天’을 중국어 어법에서는 상어(狀語)라 하는데 상어의 주된 통사적 특징은 생략 가능하며 서술어나 다른 상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통 한국어의 수의적 부사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어라 부르는 문장성분 중에는 통사적으로 상어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昨天’을 일반언어학의 용어를 사용하여 부가어로 부른다.

18) ‘那只狗’을 중국어 어법에서는 빈어(賓語)라 하는데 빈어는 서술어가 요구하

한국어에서도 화제는 보통 문두에 위치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화제는 중국어의 경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위치가 자유롭다.

(14) 가. 어제는 내가 장삐를 만났다.

나. 내가 어제는 장삐를 만났다.

다. 내가 장삐를 어제는 만났다.

(15) 가. 저 개는 내가 본 적이 있다.

나. 내가 저 개는 본 적이 있다.

(14가)에서 화제는 문두에 위치한 부사어 ‘어제’인데 이 화제는 (14나)와 (14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위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15가)에서는 목적어인 ‘저 개’가 문두의 위치로 이동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15나)에서는 ‘저 개’가 원래의 위치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 화제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화제표지(topic marker)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한국어의 대표적 화제 표지는 ‘은/는’이다.

중국어에도 ‘啊’, ‘嘛’, ‘呢’, ‘吧’ 등의 화제표지가 존재한다.

(16) 那 只 狗 啊/嘛/呢, 我 见 过。

nà zhī gǒu a /me/ne wǒ jiàn guò

(저 개는 내가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吧’는 절을 화제로 실현시킬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는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성분으로 보통 한국어의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보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빈어라 부르는 문장성분 중에는 통사적으로 빈어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那只狗’를 일반언어학의 용어를 사용하여 보충어로 부른다.

- (17) 喝酒 啊/嘛/呢/吧, 也好 呀。
hē jiǔ a/me/ne/ba yě hǎo ya
(술을 마시는 것, 그것도 좋아요.)

다른 화제표지들은 화제가 명사구나 절인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화제표지라기 보다는 휴지사(pause particle)에 가깝다. 중국어에서는 흔히 화제 다음에 휴지를 두는데 이 휴지의 역할을 이들이 대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제를 나타내기 위해 이들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的话’나 ‘要说’와 같은 화제표지도 존재하나 이들은 주로 구어에서 사용된다.

- (18) 가. 舒 服 地 生活 的话, 台北 好。
shū fu de shēnghuó dehuà táiběi hǎo
(편안하게 살기는 타이베이가 좋다.)
나. 要说 勤奋, 珉宇 更 勤奋。
yàoshuō qínfèn mínyǔ gèng qínfèn
(부지런하기를 말하자면 민우가 더 하다.)

3.2.2. 화제가 될 수 있는 요소

한·중 양 언어에서 어떤 요소가 화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어에서는 거의 모든 문장성분이 화제가 될 수 있다.

- (19) 가. 칠수는 학교에 갔어요.
나. 그 사람은 내가 만났어요.
다. 민우는/민우에게는 내가 벌써 돈을 줬어요.
라. 어제는 비가 많이 왔어요.

마. 영수는 어머니가 오셨어요.

바. 가격은 이것이 훨씬 더 싸요.

(19가)에서는 주어, (19나)에서는 목적어가 화제가 되었다. 한편, (19다)에서는 필수적 부사어 ‘민우에게’가 화제가 되었는데 화제의 실현 형태가 두 가지이다. 즉, ‘민우에게’에 화제표지 ‘은/는’이 붙은 형태인 ‘민우에게는’과 여기에서 ‘에게’가 탈락한 ‘민우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19라)에서는 수의적 부사어가 화제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마)의 ‘영수는’은 어떤 성분이 화제가 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19바)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19바)의 원래 어순은 다음 (19바‘)일 것으로 사료된다.

(19바‘) 이것이 가격이 훨씬 더 싸요.

‘이것’ 뒤에 ‘이/가’ 대신 ‘은/는’이 붙은 다음 (19바“)도 가능하다.

(19바“) 이것은 가격이 훨씬 더 싸요.

그러나 (19바)에서는 ‘가격’이 화제가 되어 문두 위치로 이동하였다. 중국어에서도 거의 모든 성분이 화제가 될 수 있다.

(20) 가. 我 喜欢 苹果。

wǒ xǐ huān píng guǒ.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나. 那 只 狗 我 见 过。

nà zhī gǒu wǒ jiàn guò

(저 개는 내가 본 적이 있어.)

- 다. 张三/给张三 我 提前 打 过 电话 了。
zhāngsān/gěizhāngsān wǒ tí qián dǎ guò diàn huà le
(장싼은/장싼에게는 내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 라. 昨天 下 雪 了。
zuótiān xià xuě le.
(어제는 눈이 내렸다.)
- 마. 那 棵 树 叶子 很 大。
nà kē shù yè zi hěn dà
(그 나무는 잎이 크다.)
- 바. 香味, 玫瑰 更 好。
xiāngwèi méiguī gèng hǎo
(향기는 장미가 더 좋아요.)

(20가)에서는 주어 ‘我’, (20나)에서는 보충어 ‘那只狗’가 화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보충어가 화제가 될 때에는 모호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21) 가. 哲洙 更 喜欢 英姬。
zhézhū gèng xǐhuān yīngjī
(철수는 영희를 더 좋아한다.)
- 나. 英姬 哲洙 更 喜欢。
yīngjī zhézhū gèng xǐhuān
(영희는 철수가 더 좋아한다./영희는 철수를 더 좋아한다.)
- 다. 英姬, 哲洙 更 喜欢 她。
yīngjī zhézhū gèng xǐhuān tā
(영희는 철수가 (그녀를) 더 좋아한다.)

(21가)의 ‘英姬’를 화제로 만든 문장이 (21나)이다. 그런데 (21나)는 문맥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다. 하나는 화제 ‘英姬’가

‘喜欢’의 목적어인 경우며 다른 하나는 ‘英姬’가 ‘喜欢’의 주어인 동시에 화제로 사용된 경우이다. 중국어에서는 (21나)와 같은 문장을 거의 쓰지 않는다. 만약 쓴다면 이와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즉 첫째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21다)에서와 같이 화제 ‘英姬’를 대명사 ‘她’로 다시 받아야 한다.

(20다)의 원래 문장은 다음과 같다.

(20다) 我 提 前 打 电 话 过 了 给 张 三。
wǒ tí qián dǎ diànhuà guo le gěi zhāngsān
(나는 먼저 장싼에게 전화를 했어요.)

(20다)에서 ‘给张三’이 문두로 이동하여 (20다)에서와 같이 두 가지 형태, 즉 ‘张三’과 ‘给张三’으로 화제가 되었다. 전자는 후자의 형태에서 ‘给’이 빠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한국어의 부사어가 화제가 될 때와 유사하다.

(20라)에서는 ‘昨天’이 화제가 되었다.

(20마)에서 ‘那棵树’는 화제이고 ‘叶子’는 주어이다. 중국어에서도 (20마) 유형의 문장이 자주 사용되며 이를 이중주어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일부 학자들이 문두의 명사구를 전체 문장의 주어로 분석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화제의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해 보면 이 문장이 화제와 주어 사이에 ‘전체-부분’의 관계를 갖는 화제-진술문임을 알 수 있다. 즉, 화제는 문장이 진술하는 대상인 한정 명사구이고 주어는 ‘大’라는 속성을 갖는 직접적 주체이다. (20마)는 다음 (20마)와 의미적으로 유사하다.

(20마) 那 棵 树 的 叶 子 很 大。
nà kē shù de yèzi hěn dà

(그 나무의 잎은 크다.)

그러나 (20마‘)의 ‘那棵树的’가 ‘那棵树’로 화제가 된 문장이 (20마)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어에서도 (20바) 유형의 문장이 가능하다. (20바)의 원래 문장은 (20바‘)인 것으로 사료된다.

(20바‘) 玫瑰 香味 更好。
 méiguī xiāngwèi gèng hǎo
 (장미는 향기가 더 좋아요.)

(20바‘)에서 화제는 ‘玫瑰’이며 주어는 ‘香味’인데 여기에서 ‘香味’가 문두로 이동하여 화제가 된 문장이 (20바)이다.

한국어에서는 서술어도 화제가 될 수 있다.

(22) 가. 민우가 더 부지런하다.
 나. 부지런하기는 민우가 더 하다.

‘부지런하다’라는 서술어를 화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명사화해야 한다. 따라서 명사형 어미 ‘-기’를 서술어 뒤에 붙여 ‘부지런하기’를 만든 다음 이를 화제의 위치인 문두로 이동시키면서 화제표지인 ‘은/는’를 붙였다. 서술어가 명사화됨에 따라 문장 내에 서술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원래 서술어의 위치에 대동사(代動詞)나 대형용사(代形容詞) ‘하다’를 두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한국어에서는 서술어가 화제가 될 수도 있다.

중국어의 경우에도 서술어가 화제로 실현될 수 있다.

(23) 가. 珉宇 更 勤奋。

mínyǔ gèng qínfèn

(민우가 더 부지런하다.)

나. 勤奋 (的话), 珉宇 更 勤奋。

qínfèn (dehuà), mínyǔ gèng qínfèn

(부지런하기는 민우가 더 부지런하다.)

다. (要说) 勤奋, 珉宇 更 勤奋。

(yàoshuō) qínfèn, mínyǔ gèng qínfèn

(부지런하기를 말하자면 민우가 더 부지런하다.)

라. 勤奋 (的话), 珉宇 更 胜 一筹。

qínfèn (dehuà), mínyǔ gèng shèng yì chóu

(부지런하기는 민우가 조금 더 많다.)

서술어 성분의 주제화가 중국어에서도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어의 ‘하다’와 같이 서술어를 대신할 요소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23나)나 (23다)에서와 같이 서술어를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사용한다. (23라)에서는 서술어를 반복해 쓰지 않고 ‘부지런하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胜一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3나)와 (23라)의 ‘的话’는 구어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화제표지인데 생략이 가능하다. (23다)의 ‘要说’ 역시 화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한국어에서는 단어, 구뿐만 아니라 절도 화제가 될 수 있다. 한국어의 절을 크게 나누면 접속절과 내포절로 나눌 수 있는데 내포절만이 화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 철수가 민우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25) 철수가 나에게 영희가 예쁘다고 말했다.

(24)의 명사절 내포절과 (25)의 인용절 내포절은 다음과 같이 화제가

될 수 있다.¹⁹⁾

(24') 민우가 시험에 합격하기는 철수가 바란다.

(25') 영희가 예쁘다고는 철수가 나에게 말했다.

접속절 중에도 화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

(26) 가. 철수가 노래를 부르고 영희는 춤을 춘다.

나. 철수가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학교 문법에서는 (26가)를 대등접속절, (26나)를 종속접속절이라 하는데 대등접속절은 화제가 될 수 없으나 종속접속절은 화제가 될 수 있다.

(26') 가.*철수가 노래를 부르고는 영희는 춤을 춘다.

나. 철수가 밥을 먹고는 학교에 갔다.

일반적으로 한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성분은 화제가 될 수 있는데 대등접속절은 문장성분이 될 수 없으므로 화제가 될 수 없다. 이는 (26'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나)의 종속접속절은 부사절로 전체 문장의 부사어로 사용되었는데 따라서 화제가 될 수 있다. (26나)의 부사절은 전체 문장의 부사어의 역할을 하므로 종속접속절로 분석하지 않고 내포절로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 절이 화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분석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즉, (26나)의 절이 (26'나)에서와 같이 화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절이 문장성분의 역할을 하며

19) 한국어 학교문법에서는 서술절을 인정하며 이를 내포절의 한 유형으로 분석하나 본 연구에서는 서술절을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서술절을 내포절로 분석하지 않는다.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포절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중국어에서도 다양한 절이 화제가 될 수 있다.

(27) 生活 台北 最 方 便。

shēnghuó táiběi zuì fāng biàn

(생활하기는 타이베이가 제일 편하다.)

(28) 到 美国 留学 政府 早 规定 了 办法。

to měiguó liúxué zhèngfǔ zǎo guīdìng le bànfa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것은 정부가 이미 절차를 만들어놓았다.)

(29) 历史系开会 我 可以 跟 李四 提 一 提。

lishǐ xì kāi huì wǒ kěyǐ gēn lǐsì tí yī tí

(역사학과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내가 리쓰에게 한번 말해줄 수 있다.)

(27)에서 밑줄 친 부분이 화제가 된 절인데 이 절에는 서술어 ‘生活’ 이외의 다른 성분은 실현되지 않았다. 중국어 문법에서는 이를 동사(구)가 화제로 실현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고립어인 중국어에서 절을 나타내는 표지나 서술어의 활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중국어에서는 동사(구)와 주어가 생략된 절이 구별되지 않는다. (27)에서 ‘生活’는 화제이며 전체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는 ‘台北’와 ‘方便’이다. 그렇다면 어떤 성분에 해당하는 절이 화제가 된 것일까? (27)의 원래 어순 문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27') 台北 生活 起来 最 方 便。

táiběi shēnghuó qǐ lái zuì fāng biàn

(타이베이는 생활하기에 제일 편하다.)

(27')에서 전체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는 각각 ‘台北’과 ‘方便’이며 ‘生活起来’는 내포절이다. 이 내포절은 화제로 실현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문두로 이동할 수 있다.

(27'') 生活 起来, 台北 最方便。
shēnghuó qǐ lái, táiběi zuì āng biàn
(생활하기에는 타이베이 가 제일 편하다.)

이때 ‘起来’는 생략 가능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27'')에서 (27)이 산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起来’는 원래 동사이나 문법화의 과정을 거쳐 동사나 형용사 뒤에 놓여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한국어의 경우와 유사하다.

- (30) 가. 타이베이가 생활하기에 제일 편하다.
나. 생활하기에는 타이베이가 제일 편하다.
다. 생활하기는 타이베이가 제일 편하다.

(30가)에서 내포절 ‘생활하기에’는 화제가 되기 위해 (30나)에서와 같이 문두로 이동하였다. 그 다음에 (30다)에서와 같이 조사 ‘에’가 탈락된 형태로 화제로 실현되었다.

한편, (27)의 원래 어순 문장으로 다음 (31)을 설정해 볼 수도 있다.

(31) 台北 生活 最方便。
táiběi shēnghuó zuì fāng biàn
(타이베이는 생활이 제일 편하다.)

그런데 중국인 모어 화자의 직관에 따르면 (31)에서는 ‘生活’이 동사

가 아닌 명사로 판단된다. 즉, (31)은 다음 (32)로부터 만들어진 문장으로 분석된다.

(32) 在 台北 生活 最 方 便。
zài táiběi shēnghuó zuì fāng biàn
(타이베이에서는 생활이 제일 편하다.)

(32)에서의 화제는 ‘在台北’이며 주어는 ‘生活’이다. (32)에서 ‘在’가 생략된 문장이 (31)이다. 따라서 (31)을 (27)의 원래 문장으로 분석할 수 없다. 한편, (27)의 ‘生活’는 서술어 ‘方便’이 요구하는 필수적 성분이다.

(28)에서는 ‘到美国留学’란 절이 화제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이 절을 중국어 문법에서는 동사구라 부르기도 한다. 이 절은 수의적 성분이다.

(29)에서는 ‘历史系开会’란 절이 화제가 되었는데 이 절은 주어까지 실현된 완전한 절로 필수적 성분이다.

3.2.3. 화제의 생략

한국어와 중국어의 화제는 생략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양 언어에서 두 문장이 이어질 때 후행 문장에서 생략 가능한 것은 보통 앞 문장의 화제이다.

(33) 민우는 형이 왔다. 그래서 아주 기뻐다.

(34)에서는 후행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었는데 이는 선행 문장의 주어 ‘형’이 아닌 화제 ‘민우’이다. 중국어의 경우에도, 선행 문장에 주어와 화제가 모두 존재할 때 후행 문장에서 생략 가능한 것은 보통 화제이다.

- (34) 张三 个子 很高。 所以 我 喜欢。
zhāngsān gè zi hěn gāo. suǒyǐ wǒ xǐhuān.
(장싼은 키가 크다.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

(34)의 후행 문장에서 서술어 ‘喜欢’의 성분 하나가 생략되었는데 이는 선행 문장의 주어 ‘个子’가 아니라 화제 ‘张三’이다. 두 문장이 이어질 때, 후행 문장에서 생략되는 성분이 보통 주어가 아닌 화제라는 것은 화제의 담화적 성격에 기인한다. 화제는 진술의 대상이므로 이어지는 여러 문장이 동일한 화제를 갖는 경우가 흔히 있다. 즉, 화제는 쉽게 문장의 경계를 넘어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반면, 주어는 자신이 화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쓰인 문장 내에서만 주어의 구실을 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주어 설정의 문제점들을 화제와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였고 양 언어 화제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어의 주어 형식이나 ‘이/가’ 표지, 중국어의 서술어 앞이라는 위치/어순은 매우 표면적인 현상으로 이들이 양 언어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때 참고는 되지만 이들만으로는 양 언어의 주어를 식별할 수 없음을 보였고 따라서 서술어의 선택 제약에 대한 고려가 주어의 식별을 위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화제를 논의하면서 통사 층위 개념인 주어와 담화 층위 개념인 화제의 구분이 필요하며 중국어의 경우 화제가 문장 구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라는 것과 중국어의 문장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는 화제가 주어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였다. 한국어 역시 화제중심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화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문장 구조 이해에 필수적이라는 것도 보였다. 그리고 양 언어 화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위치와 표지, 화제가 될 수 있는 요소, 생략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주어와 화제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양 언어의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양 언어의 화제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분석은 언어유형론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미미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향후 보완해야 할 많은 미비점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 언어 화제의 차이점에 대해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한국어의 주어를 확인, 식별하기 위한 통사적 테스트, 즉 ‘-시-’와의 일치, 재귀사 접속, 접속문 삭감, 관계화 등이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 문헌>

김기혁(2008). “언어유형론(Whaley, L.(1997)의 번역본)”, 소통.
 김기혁 외(2008). “언어 범주와 유형 : 이론과 응용”, 소통.
 남기심·고영근(200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남기심 외(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맹주역(1992). “현대중국어문법”, 청년사.
 목정수(2005). 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새로운 해석, <언어학> 41호, 75-99쪽.
 박정구 외(1989). “표준 중국어 문법(Li,C. & Thompson, S.(1989)의 번역본)”, 한글.
 박종한(1998). 중국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특성 대조 연구, <Foreign Language Education> 4(1)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137쪽~161쪽.
 임동훈(1997). 이중 주어문의 통사 구조, <한국문화> 19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1-66쪽.

조경순(2014). 국어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한 통사-의미론적 재고, <언어과학연구> 68호, 언어과학회, 359-382쪽.

한정한(2013). 명사 논항의 자릿수와 이중주어 구문의 주어, <한국어학> 61호, 369-402쪽.

北京语言大学(2008). 『外国人实用汉语语法』, 北京语言大学出版社.

刘月华(2001). 『实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

丁崇明(2009). 『现代汉语语法教程』, 北京大学出版社.

陆庆和(2006). 『实用对外汉语教学语法』, 北京大学出版社.

齐沪扬(2005). 『对外汉语教学语法』, 复旦大学出版社.

张琢石(2003). 『现代汉语的主语和宾语问题』, 『社会科学辑刊』, 第4期, 辽宁大学出版社.

Chao, Y.[趙元任](1985). *A Grammar of Spoken Chinese*[中國話的文法],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reenberg, J.(1963a).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in Greenberg(1963b : 73-113).

_____ed.(1963b). *Universals of Language*, MIT Press.

Li, C. & Thompson. S.(1989). *Mandarin Chinese :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haley, L.(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 The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 Sage Publications.

박동호(Pak, Dongho)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446-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전화번호: 031-201-2260

전자우편: pakdh@khu.ac.kr

접수일자: 2016년 4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6년 6월 10일

게재확정: 2016년 6월 15일